



주님 말씀하시면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부모님]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시선이나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던 사도들의 믿음을 닮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자녀] 하나님, 학교나 친구들 앞에서 쑥스럽고 어색해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하나님 믿는 어린이답게 행동할 기회를 놓쳤던 적이 있었어요. 나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온 가족 함께]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속하신 도우심과 은혜로 늘 함께해 주세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Q1.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감옥 문을 열어주며 어디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나요? (정답: 성전!)

Q2. 학교나 놀이터에서 친구에게 예수님이나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쑥스럽거나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말을 건네지 못하고 지나쳤던 순간이 있었나요?

Q3.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친구나 이웃, 가족이 있다면, 이름을 적어보고 어떻게 전할지 준비를 해 보아요.

2026년 10월 셋째주

가정

하나님께
여배 드립니다.



성경이야기

학교나 놀이터에서 친구와 신나게 놀다가 문득 '오늘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할까?', '예수님 이야기 해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 있나요? 하지만 "친구들이 놀리면 어찌지?", "쑥스러운데..." 하고 주저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 그때 용기 내서 말할걸!' 하고 아쉬워했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지만, 사람의 눈치나 쑥스러움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도들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면 또 감옥에 가두고 혼내겠다고 위협하는 무서운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 문을 열어주며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사도들은 사람들의 눈치나 위협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하지 말라는데 또 전하느냐?"며 화를 냈지만, 사도들은 이렇게 씩씩하게 외쳤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5:29)

사도들은 사람의 눈치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 내어 순종할 때 혼자 두지 않으시고 마음속 두려움을 몰아내며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예요.

우리도 친구 앞에서 식사 기도할 때, 혹은 친구에게 예수님이나 교회 이야기를 전할 기회가 찾아올 때 쑥스러워 피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래요!" 하고 기회를 잡는 용기 있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요!

예배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

말씀봉독 사도행전 5장 17~32절 다 같이

성경이야기 쑥스러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순종해요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공동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양과 말씀나눔과 공동기도문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